

축 사

꽃으로 전하는 부처님마음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꽃 한 송이로 인해 크고 넓게 피어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에 천이백명의 제자와 팔만사천의 대중이 모여 있을 때 범천왕이 내려와 꽃을 공양하고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면서 스스로는 법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법상에 올라 묵묵히 대중을 바라보시던 부처님께서 문득 범천왕이 올린 한 송이의 연꽃을 들어 보였습니다. 대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마하가섭만이 빙그레 미소를 짓자 부처님은 “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범천왕의 헌화공양(獻花供養)하는 마음이나 부처님의 염화시중(拈花示衆)이나 가섭의 염화미소(拈花微笑)는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자리인 이심전심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전시작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모두가 헌화요 헌공으로 아름다운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이고 향기로운 마음인 부처님의 마음과 합일한 범천왕의 헌화공양과 같은 것이며 염화시중과 염화미소와 같은 공덕의 화현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제10회 연화장세계를 만들어 준 한국불교꽃예술회와 대한불교꽃꽃이연합회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동참을 해주신 사부대중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사상과 이념의 가치보다는 문화를 통한 평화와 공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꽃을 통한 문화포교 사업에 23년의 긴 세월 동안 큰 역할을 수행하신 자문위원 지연, 보명, 정명, 상덕스님과 회장 선오스님, 임원스님과 회원스님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꽃문화를 통하여 부처님의 법향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리라 믿으며 꾸준한 연구와 발전을 거듭하시길 기대합니다. 수행정진과 포교불사에 분망하심에도 불고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염화시중의 공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불기2554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